더 강력해진 물축제 “노는 물이 다르다”

장흥군, 야간 이벤트 활성화해 체류형 축제로 발전 시도

10돌을 맞은 정남진 물축제가 재미와 참여 부문에서 3가지씩 새로운 색채를 덧입고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는 28일 장흥군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막을 올리는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보여주는 축제에서 노는 축제로 확실히 체질을 바꿨다.

관광객과 지역민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올해 물축제, 달라진 3가지를 짚어본다.

첫째, 지난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워터락 풀파티를 기존 금, 토요일 2회에서 일요일까지 3회로 확대하고 유명 DJ로 라인업을 대폭 보강했다.

올해는 디제잉을 위한 무대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치하는 등 워터락 풀파티를 중심으로 물축제 야간 이벤트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군은 야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물축제가 체류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물축제 무대를 중앙로까지 확장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외연을 넓힌다.

물축제의 열기가 가장 고조되는 29일(토), 중앙로 일대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와 버닝 세러데이 행사의 주무대로 변신한다.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시가지를 행진하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올해 1만명 참석을 목표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식 무대 차량을 이용해 벌이는 버닝 세러데이 행사는 각종 공연과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셋째, 지상최대의 물싸움과 수중줄다리기에 장흥의 역사와 전통의 색채가 더해졌다.

물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에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에는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한 관군과 농민군의 물싸움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치열한 물싸움 뒤에는 ‘충’과 ‘의’로 대표되는 관군과 농민군이 서로 화합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140년 전통의 장흥고싸움을 재현한 전국 수중줄다리기는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박진감 넘치도록 재구성했다.

한층 수준 높아진 프로그램 뒤로 격식을 깬 진행과 물축제 성공을 위한 노력 3가지도 눈에 띈다.

첫째, 물축제는 개막식부터 평범함을 거부한다.

물축제 행사의 시작을 기존의 형식적 절차 대신, 참가자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으로 과감히 바꿔서 진행한 것.

군은 형식보다는 관광객의 신나는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정체성,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담은 물축제의 면모를 과감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군수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들이 교통봉사 요원으로 나서며,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단체 리더들은 축제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4개 구간에서 교통봉사를 펼치며 물축제의 성공의 이끌 예정이다.

셋째, 지역 전체가 물축제의 주최자라는 사명감으로 탐진강 청소와 환경정리에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공무원 800여명이 탐진강 물속에 들어가 징검다리와 여울의 이끼를 제거했다.

물축제 준비가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도록 군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김성 군수는 “물축제가 개최 10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 여름 많은 분들이 물축제를 통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읍 탐진강변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23℃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화려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내달 11~12일 개최

내달 11일~12일 이순신광장 일원…SNS로 생중계

제2회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다음 달 11일과 12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및 장군도 해상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올해 불꽃축제 주제를 ‘여수의 밤, 그리고 별’로 정하고, 지난해 보다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불꽃 연출을 통해 이를 풀어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축제 시비 4억원 등 총 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제1회 불꽃축제에 이어 2회 축제도 박수관 ㈜YC-TEC회장이 3억원을 후원한다.

‘여수의 낭만’을 이야기한 지난해 제1회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26만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졌지만, 도심 축제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 했다.

시는 올해 축제는 교통 혼잡 등 지난해 축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불꽃쇼다. 불꽃과 조명·레이저가 조화를 이뤄 보다 생동감 있고 임팩트 있는 불꽃이 연출된다.

특히 조명과 레이저·불꽃을 이용하는 작은 Big-O 공연과 아크로바틱 파이어와 불꽃의 조화를 볼 수 있는 파이어 댄스 공연도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11일은 다양한 음악 비트에 맞춰 춤추는 정교한 뮤지컬 불꽃쇼가 펼쳐진다. 12일은 불꽃을 통해 불새, Big-O, 그랜드 피날레 등이 연출된다. 또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움직이는 치구, 레인보우 불꽃 등도 준비돼있다.

움직이는 치구는 최근 유럽 등 테마파크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연출형태로 화려하고 다양한 불꽃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이번 제2회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서 최초로 연출된다. 레인보우 불꽃은 음악 비트에 맞춰 연출되는 불꽃이다.

시는 이번 불꽃 축제 진행 과정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축제 기간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행사장 진입차량을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중앙여자고등학교 방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박람회장과 오동도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월로와 여수시민회관 방면 도로 이용 차량은 돌산회타운과 국동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내버스 막차 운행시간을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장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지산면 적십자봉사회 · 공직자들

‘내집처럼’ 주거환경개선 구슬땀

장애인 · 독거노인 집 대청소…집안 쓰레기 1톤 수거

진도군 지산면 적십자봉사회와 공직자들이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집을 무료로 청소해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진도군 지산면의 한 낡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모(50세)씨와 이모(76세)할아버지.

이들 소외계층의 소원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값비싼 자동차를 타보는 것도 아닌 낡아도 깨끗한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다.

장애와 고령의 나이에 거동이 불편해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집 안 청소를 하기에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차제남 지산면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지산면 적십자봉사회(회장 한소녀) 등 20여명이 최근 대대적인 집안 청소를 실시했다.

이들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무려 1톤으로 공직자들과 자원봉사단

체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주방과 안방, 거실 등의 청소와 함께 목욕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진도군 지산면 관계자는 “장시간 청소하는데 힘들었지만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진도군 지산면은 일회성 청소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한 달에 한번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해 소외계층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 안정된 사회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간담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는 25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업 참여자 446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3개 분야에서 1,001명이 활동 중이며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에서 446명의 참여자가 노노케어, 경로당관리, 경로식당 도우미, 게이트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참여 어르신 대표 10명의 활동 우수사례 보고를 시작으로 일자리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정양수 무안군노인회지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 일자리사업 활동점검과 남은 5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